



그리스도의 세례
조반니 벨리니 작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347-834-5784

212-736-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이사야서 42,1-4.6-7

화답송



(후렴) 주님이 당신 백성에 - 게 강복하여평화를 -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사도행전 10,34-3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3,15-16.21-22

영성체송 |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성가 | 입당성가 [481]

예물준비 [479]

영성체 [174]

파견 [1]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이정진 안토니오 3주기	이병국
이정진 안토니오	이영애 레지나
정승환 페르디난도	김승범프란치스코
이공남 마리아	가족
이효경	이성수미카엘
오복순	양마리아
윤광환	홍순완 비오
생미사	봉헌
김영희 클라라 영육건강	이경자 율리안나
이영애 레지나, 이미진 조앤 그레이스	가족
조귀숙 마끄리나 축일	허인선
성령기도회	양마리아
정재업 비오	김승범 프란치스코
이영애 레지나 생신축하	김민정 세라피나
이영애 레지나 생신축하	유정옥 유스티나
이영애 레지나 생신축하	이병국
이영애 레지나	이미진 조앤 그레이스
이진우 다니엘 가정	이그렝 클레멘스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월 12일	김진수	송명근	김승연	김승연	김종선	조바실리오 김실비아
1월 19일	백이백	김진수	고은경	고은경	김영숙	최사도요한 이유스티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유아세례 축하드립니다~



서이나 스텔라 이은영 스텔라 이지유 율리애나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설 합동 위령 미사

일시: 1.26(주일) 9시 15분, 윗 성당
신청: 친교실 안내데스크(연령회 담당) 마감: 1.19(주일)
☺ 이름을 바르게 써 주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설 명절 행사

일시 및 장소: 1.29 미사 후, 친교실
일정: 1)공동체 어르신들께 세배예절 2)전통놀이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이날의 모든 단체별 모임은 설 행사로 대체됩니다.

▶성령기도회 미동복부 기초세미나

2.13(목)~16(일) 뉴튼수도원. 신청비 \$390
문의: 맨하탄 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917)929-4242; janemin@gmail.com.

▶성령기도회 찬양미사

1.21 6:30pm~8:30pm 다미안홀. 초대합니다.

▶청년 겨울캠프

장소: Tannersville, NY 일정 : 2.14~16(2박 3일)
참가비: \$190(non-refunable depst; \$120
(스키 리프트 및 렌탈은 별도)
문의: 청년회장 진현중 빈첸시오 929.660.4456

▶청년 성서모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첫모임: 2.16(일) 12시. 참석필수 장소: 다미안홀
문의: 대표봉사자 유선욱 베로니카 714.809.9874 카톡: sunwouk

▶2025 '일년일독 성경통독' 안내

2025년 새 성경통독표는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고 매일 와 닿은 말씀을 노트에 적으면서, 성경말씀을 새기는 감동,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성경통독을 마치신분은 사무실에 성경 통독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년일독 성경통독'하신분

이경자 율리애나, 경재순 가밀라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도 성경통독의 기쁨을 누리세요~ ☺

성경, 그 거룩한 독서에 대하여

1. 성경은 모두 하느님의 영감으로 씌어졌다.
2. 성경은 신주단지기가 아니다. '집어 들고 읽어야'
3. 사람들이 우리 집에, 우리 방에 들어왔을 때 성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4. 성경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나의 시선이 모아지는 곳에 있게 할 것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의 마지막 책이 되어야 한다.
5. 성경이 모셔져 있는 책상을 제단처럼 여겨라. 그것은 사적으로 모시고 있는 나의 감실이다.
6. 성경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7. 성경을 읽고 싶은데 만약 그대 안에서 입맛을 돋우지 못한다면, 그대가 아프다는 신호다.
8. 우리의 기억 속에 성경 말씀이 풍요롭게 쌓이고, 흘러넘치게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따로 외우고 다녀라.

▶고해성사 휴무 12/16/2024 ~ 1/12/2025

▶2025년도 본당 달력 배부

필요하신 교우분들은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2025년 친교실 봉사 안내

1월	사목회	7월	청년: 주보팀, 찬양팀, 성서모임
2월	요셉회, 성모회	8월	울뜨레아
3월	꾸리아	9월	청년회
4월	학부모회	10월	학부모회
5월	연령회	11월	꾸리아
6월	선교분과: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풍물패	12월	성모회, 요셉회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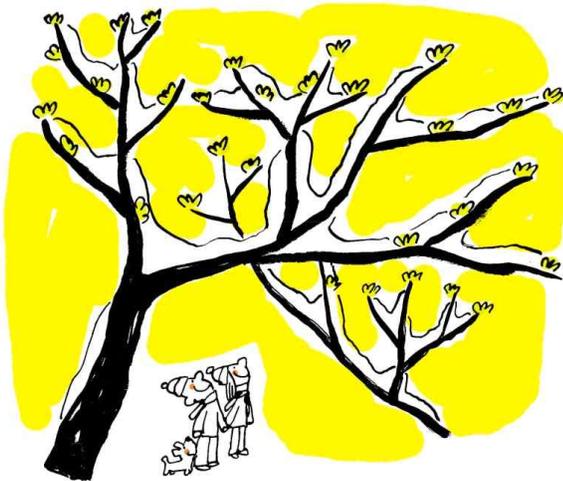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눈 내리는 날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함께 춤을 추고,
세상 모든 것들이 흐르는 음악이 된다.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 clearlaser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FREE DELIVERY)
212-265-0333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VATICAN NEWS

교황 “무기로 민족 지배하는
폭력의 시대를 끝냅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의 첫 순교자 성 스테파노를 기념하는 12월 26일 삼중기도 말미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상 곳곳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했다. 아울러 희년을 맞아 빈곤에 짓눌린 나라들이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황은 또 최근 받은 축하 인사들에 감사를 표하며, 도움과 평화가 필요한 이들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부채 탕감

교황은 이날 오전 “고통과 희망의 대성당”으로 불리는 로마 레비비아 교도소의 성문을 열었다. “저는 성 베드로 대성전 성문에 이어 오늘 오전 로마 레비비아 교도소 성당 성문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희년의 특징 중 하나가 “부채 탕감”임을 강조하며, 신자들에게 국제 카리타스의 “부채를 희망으로 변화시킵시다” 캠페인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운동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고통받는 국가들을 돕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부채 문제는 평화 문제 그리고 무기 ‘암시장’ 문제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무기로 민족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군비를 줄이고, 굶주림을 없애며, 질병을 퇴치하고,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간절히 청합니다.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이스라엘, 미얀마, 북키부 지역을 비롯해 전쟁 중인 수많은 나라들에 평화가 깃들길 기도합시다.”

하누카 명절을 지내는 유대인들에게 인사

교황은 12월 25일 밤부터 8일 동안 빛의 축제인 하누카를 지내는 “전 세계 유대인 형제자매들”에게 평화와 형제애의 인사를 보냈다. 또한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으로 이어지는 희년의 순례길을 걷은 로마의 순례자들과 다른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에게도 인사를 전하며 “이는 우리 삶이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징”이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들이시고, 당신의 성심을 열어 우리를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